차 즐기며 휴식한 공간… 왕 위해 임시 설치



박동춘의
고려 茶 문화, 그 아름다움
⑬ 다점(茶店)과 다정(茶亭)

고려시대 차 문화가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은 왕실 귀족과 문벌 귀족, 관료 문인, 승려들의 차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려에서는 차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송(宋)에서 차를 수입해 거래한 흔적이 보이는데, 이는 서긍(徐兢)의 〈선화봉사고려도경〉에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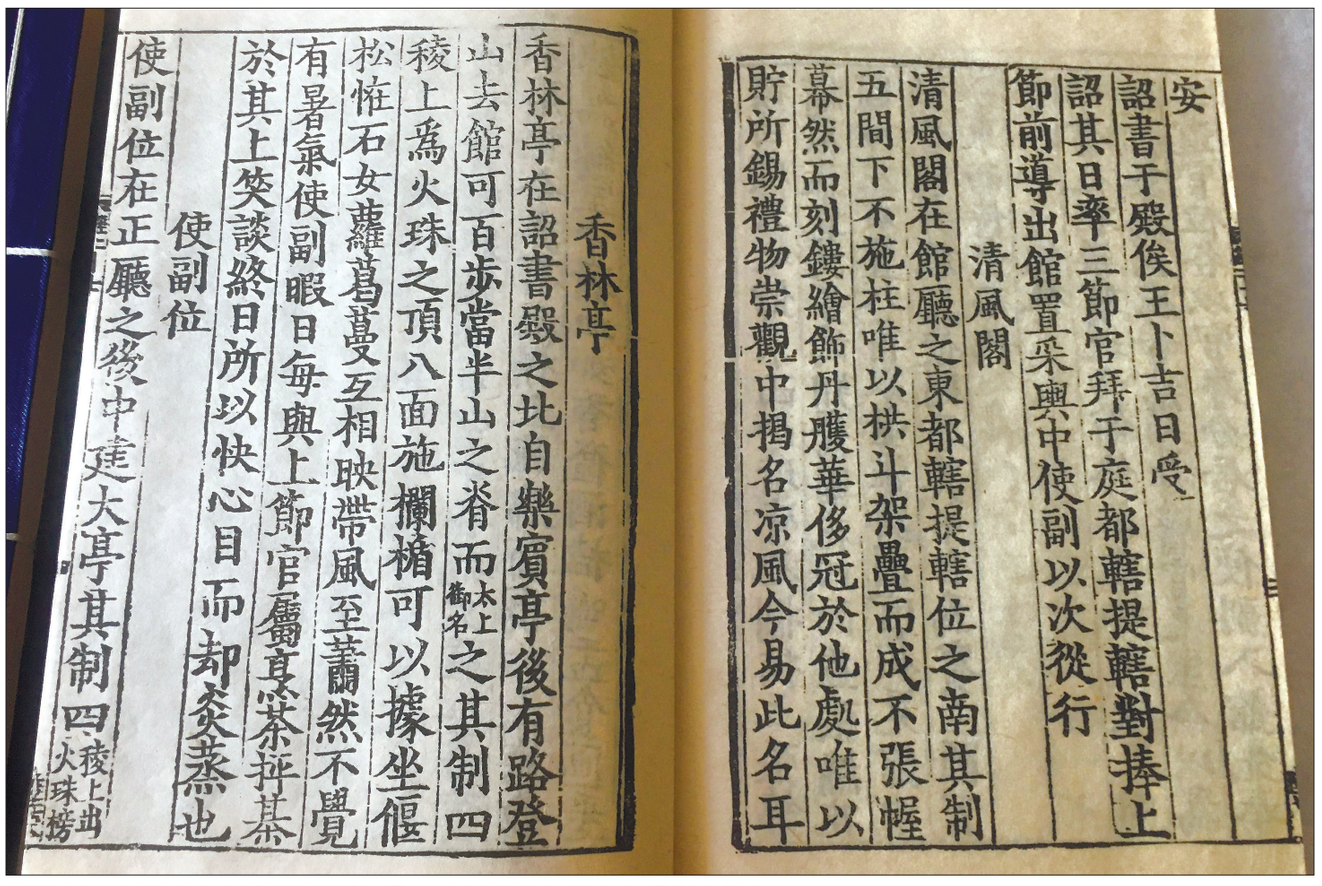
(고려에서는)중국 납차와 하사품인 용봉단차를 귀하게 여긴다. (송 황제)하사품 이외에도 상인들이 가져다 판다. 그러므로 근래에는 차 마시기를 좋아하여 더욱더 찻그릇을 만든다(惟貴中國臘茶幷龍鳳賜團 自錫賚之外 商賈亦通販 故 邇來頗喜飮茶 益治茶具)

앞글에서 서긍이 말한 납차(臘茶, 고급 단차)와 송 황제가 하사한 용봉단차는 황실용 고급차다. 정위(丁謂)가 대용봉단(大龍鳳團)을 만든 이후 채양(蔡襄)에 의해 더욱 정밀해진 소용봉단(小龍鳳團)을 생산, 황실에 공납했던 차인데, 이를 고려 왕실에 하사했다. 서긍이 고려를 방문했던 12세기에는 송 휘종의 기호에 따라 백차를 생산 황실에 받쳤다. 이 무렵 고려에서는 11세기부터 뇌원차(腦原茶)가 생산되어 국가에 공이 있는 신하에게 하사되었다. 그러므로 서긍이 고려에 사신으로 왔을 당시에 고려는 고려인의 기호와 풍토에 알맞은 차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완전하게 갖춘 시기였다. 한편 〈고려사〉에는 사원에서는 왕을 위한 다정(茶亭)을 설치하여 사치스러운 다회(茶會)가 열렸던 사실이 의종 13년(1159) 기사에서 확인되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

3월 을해(乙亥)일 왕이 현화사에 갔다. 이날 동쪽과 서쪽 양원의 스님들이 각각 다정을 차려 놓고 왕을 청했는데, 더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하려고 서로 다투었다.(三月乙亥 幸玄化寺 東西兩院僧 各設茶亭迎駕 競尙華侈)

윗글은 의종 13년(1159)의 기록이다. 이 해 3월 의종을 위해 현화사 승려들이 다정을 설치하고 다회를 열면서 왕을 위한 다정을 임시로 설치한 것이다. 당시 왕이 방문했던 현화사는 법상종 사찰이다. 원래 법상종은 석충(釋忠)이 진표 계통의 법상종을 계승하여 고려에 소개하였는데, 고려 초기 법상종은 화엄종보다 활동이 미미했다. 그러나 목종(穆宗, 재위기간 998~1009)이 자신의 원찰인 숭교사(崇敎寺)를 창건한 후, 법상종의 교세가 도드라졌으며, 현종(재위기간 1009~1031)이 즉위한 후 법상종의 교세는 더욱 확대되어 화엄종과 양립하는 형세를 이룬다.

특히 문벌귀족 이자연의 아들 소현(韶顯)이 지공국사 해린(海麟 984~1067)에게 출가하였고, 문종의 다섯째 아들이 소현에게 출가함에 따라 현화사를 중심으로 법상종 승려들의 활동이 더욱더 확대된다. 따라서 의종(재위기간 1146~1170)을 위해 현화사 동서 양원의 승려들이 다정을 설치한 후 화려하고 사치한 다회를 준비한 것은 현화사가 교학 중심의 귀족적 성향을 보인 종파였기 때문이다. 이보다 앞선 시기의 다정의 규모를 드러낸 자료로는 서긍의 〈선화봉사고려도경〉 〈관사(館舍), 향림정(香林亭)〉 이 있다.



香林亭
香林亭在詔書殿之北自樂賓亭後有路登山去館可百步當半山之脊而太上御名之其制四面施欄楯可以據坐偃松怪石女蘿葛蔓互相映帶風至蕭然不覺有暑氣使副暇日每與上節官屬烹茶抨碁於其上笑談終日所以快心目而却炎蒸也

詔書于殿俟王卜吉日受
詔其日率三節官拜于庭都轄提轄對捧上
節前導出館置采輿中使副以次從行
清風閣
清風閣在館廳之東都轄提轄位之南其制五間下不施柱唯以拱斗架疊而成不張幄幕然而刻鏤繪飾丹雘華侈冠於他處唯以貯所錫禮物崇觀中揭名凉風今易此名耳

〈선화봉사고려도경〉에 나타난 향림정에 관한 기록. 고려시대 설치전 다정의 면모를 알 수 있다.

향림정은 차를 마시며 여가를 즐긴 공간이지만 현화사의 다정과는 그 결이 다르다. 그렇지만 향림정은 고려 시대 관사에 설치된 다정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향림정은 조서전 북쪽에 있다. 낙빈정 뒷산으로 가는 길로 올라가면 관사에서 100보 가량 떨어진 산 중턱에 세워져 있다(…)8면에 난간이 있어 기대어 앉을 수 있다. 누운 소나무와 괴석에 이끼와 칡덩굴이 어우러져 있는데, 바람이 불면 서늘하여 더위를 느낄 수 없다. 정사와 부사는 여유가 있는 날, 언제나 (향림정에서) 상절의 관속들과 차를 마시고 바둑을 두며 종일 담소를 나눈다. 이는 마음과 눈을 유쾌하게 하고 무더위를 물리치는 방편이었다.(香林亭在詔書殿之北 自樂賓亭後有路登山 去館可百步當半山之背而之…中略…八面施欄楯可以據坐 偃松怪石女蘿葛蔓相互映帶 風至蕭然不覺有暑氣 使副暇日 每與上節官屬烹茶抨碁於其上 笑談終日 所以快心目而却炎蒸也)



강릉 선교장 활래정은 대표적인 다정이다.

왕을 위해 화려한 다정 설치 하기도
〈고려사〉에 임시설치 기록도 남아
향림정, 사신들이 차 즐기던 공간
차를 팔던 '다점', 휴식처로도 활용

알려진 바와 같이 서긍이 고려에 사신으로 온 해는 선화 5년(1123)이다. 그가 언급한 향림정은 소나무와 괴석을 잘 안배한 다정(茶亭)으로, 산 중턱에 있었기 때문에 풍광이 아름답고 서늘하여 더위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쾌적한 공간이었다. 이곳에서 사신들이 차를 즐기고 바둑을 두며 담소를 나누며 심신을 휴식하던 장소였다. 그러므로 고려 시대 다정은 풍광을 즐기며 차를 즐기던 복합 공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고려 시대의 다점(茶店)은 차를 팔던 장소요, 휴식의 공간이었다는 사실은 〈고려사절요〉나 임춘(林椿 · 1148~1186)의 〈이유의가 다점에서 낮잠을 자다(李郎中茶店晝睡)〉에서 확인된다. 〈고려사절요〉 제2권 〈목종선양대왕〉 편 기사에 드러난 다점은 다음과 같다.

가을 7월에 교하기를, "요사이 시중 한언공(韓彦恭)의 상소를 보니, 그 소에 '지금 선조(先朝)를 이어 돈을 사용하고 추포(麤布)의 사용을 금지해 시속을 놀라게 하여, 나라의 이익은 되지 못하고 한갓 백성들의 원망만 일으키게 됩니다.' 라고 하였다. 다점(茶店) · 주점(酒店) 등 여러 상점에서 물건을 매매할 때는 그전대로 돈을 사용하고, 그 외에 백성들이 사사로이 물건을 매매할 때는 그 지방의 편의에 따라 하도록 맡겨 두도록 한다." 하였다.(秋七月 敎曰近覽侍中韓彦恭疏 言今繼先朝而使錢 禁用麤布 以駭俗 未遂邦家之利益 徒興民庶之怨嗟 其茶酒諸店 交易依前使錢外百姓等 私相交易 任用土宜)

윗글은 목공(穆宗 · 재위기간 998~1009)때인 임인 5년(1002) 가을 7월에 내린 교서의 일부 내용이다. 물류를 유통할 때 돈을 사용하고 추포(麤布, 거친 베) 사용을 중지시켜 달라는 요청에 따른 조치이다. 그런데 "다점(茶店) · 주점(酒店) 등 여러 상점에서 물건을 매매할 때는 그전대로 돈을 사용" 하라는 조서 내용으로 보아 다점(茶店)은 차를 매매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다점이란 차를 파는 상가이기도 하지만 때론 차를 마시며 휴식하는 장소이기도 하였다. 임춘의 〈이유의가 다점에서 낮잠을 자다(李郎中茶店晝睡)〉는 다점이 휴식의 공간임을 극명하게 드러냈으니 그 내용은 살펴보자.

나른한 몸 평상에 누워 문득 형체를 잊었더니(頹然臥榻便忘形) 한낮 베개 위로 바람 불자 절로 잠이 깨누나(午枕風來睡自醒) 꿈속에서도 이 몸은 머물 곳이 없었어라(夢裏此身無處着) 하늘과 땅이란 온통 하나의 쉬어가는 역이런가(乾坤都是一長亭)

빈 다락에서 꿈을 깨보니 막 해가 저무는데(虛樓夢罷正高春) 흐릿한 눈으로 먼 산봉우리를 바라보누나(兩眼空濛看遠峯) 누가 알리, 은거한 사람의 한가한 멋을(誰識幽人閑氣味) 한바탕 봄잠이 천종(千鍾) 봉록과 맞먹으리니(一軒春睡敵千鍾)

윗글은 임춘의 〈서하집(西河集)〉에 수록된 〈이유의가 다점에서 낮잠을 자다(李郎中茶店晝睡)〉 2 수인데, 〈동문선(東文選)〉에는 〈다점에서 낮잠을 자다(茶店晝睡)〉라고 하였다. 아마 이유의는 임춘과 교유했던 인사로 낭중 벼슬을 지냈던 인물이라 짐작되는데, 그의 시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점(茶店)은 낮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었던 것이다. 그가 "나른한 몸 평상에 누워 형체를 잊었다"고 했던 건 그런 연유에서다. 그러므로 다점은 세상의 모든 근심을 덜어낼 수 있는 공간으로, 은거한 사람의 한가한 멋을 만끽할 장소였던 셈이다. 당시 다점에서 술과 차를 함께 즐겼는지는 자세하지 않더라도 주점(酒店)이 별도로 언급된 사례를 보아 차와 술은 분리하여 팔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고려 시대 다점이나 다방도 다소 변질되었겠지만 이를 규명할 자료가 드물기 때문에 현재 발굴된 사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방은 약과 차를 함께 총괄했던 관청이었고 다점은 차를 사고파는 상가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었다.

비록 후대의 기록이긴 해도 황호(1604~1656)의 〈동사록(東槎錄)〉에서는 다점의 형태가 변질된 사례도 확인되는데, 이는 그가 일본으로 사신을 갔을 때 보고 느낀 것을 기록한 사행일기에서다.

'초경(初更)에 평방(平方)에 다다르니, 평방은 곧 하내(河內)의 소속인데, 관백이 왕래할 때 차 마시는 곳이었다…중략… 평방의 옛 이름은 다점(茶店)이다. 집집마다 강 언덕에 누각을 세웠으니, 이른바 청루대제(靑樓大堤)다. 창가(娼家)의 젊은 여자들이 두셋씩 떼를 지어 누각 위에 서서 부채로 사람을 불러 차 마시기를 청한다.(初更時到平方。平方卽河內所屬。而關白往來時茶屋也。中略…平方舊名茶店。家家起樓於江岸。所謂靑樓大堤也。娼家少婦。二三爲羣。立於樓上。以扇招呼。請入進茶)'

윗글은 17세기 일본의 다점을 언급한 것인데, 고려 시대 다점과는 다르게 유곽 형태로 변질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마 일본도 차 문화 도입 초기에는 고려와 비슷하게 다점을 운영했겠지만 점차 그 형태가 변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사)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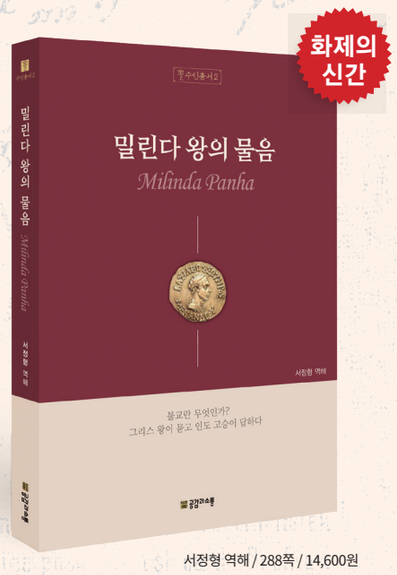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불교란 무엇인가?
그리스 왕이 묻고 인도 고승이 답하다!"



화제의 신간

밀린다 왕의 물음

알렉산더의 후예인 그리스 왕 밀린다와
불교에 정통한 인도 고승 나가세나의 주옥 같은 대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유려한 우리말로 풀어쓴
〈밀린다팡하〉역해서!

이 책은 불교에 회의적인 서구인들이 내게 묻는 대부분의 질문들에 답하고 있다.
– 비구 페살라(Bhikhu Pesala)

〈밀린다 왕의 물음〉이 인도 산문의 위대한 걸작 중의 하나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문학적 견지에서도 어느 나라의 어떤 책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작품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 리스 데이비즈(T. W. Rhys Davids)

서정형 역해 / 288쪽 / 14,600원

서정형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에서 20여 년 불교와 철학개론을 강의했고,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다.



나가세나

밀린다 왕 : 사람의 지혜는 어디에 머뭅니까?
나가세나 : 머무는 데가 없습니다.
밀린다 왕 : 그렇다면 지혜라는 건 없군요.
나가세나 : 바람은 어디에 머뭅니까?
밀린다 왕 : 머무는 데가 없습니다.
나가세나 : 그럼 바람은 없습니까?

공감과소통 전화 031-942-9472